

# 元雜劇 佛教劇 연구

— 三教合一을 중심으로 \*

金光永\*\*

##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삼교합일의 내력
  - 2) 불교극 중의 유교적 성분
  - 3) 불교극 중의 도교적 성분
3. 결론

## 1. 서론

원잡극 중에는 인과응보와 윤회 등 불교적 사상과 교리를 선전하기 위한 내용이 극 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들 작품을 불교극이라고 명칭하고자 한다. 원잡극 중 이러한 불교극은 논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의 8종 작품을 불교극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sup>

1. 度脫劇 4편: 「布袋和尚忍字記(간칭 忍字記)」, 「花間四友東坡夢(간칭 東坡

\* 본 연구는 2017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1) 일례로 羅錦堂은 그의 『錦堂論曲』에서 불교극을 '弘法度世'와 '因果輪回'의 두 부류로 나누면서, 「西遊記」「東坡夢」「忍字記」「度柳翠」「猿聽經」 다섯 작품을 '弘法度世'에 소속시키고, 「來生債」「崔府君」「看錢奴」를 '因果輪回'의 부류에 소속시켰다. 羅錦堂著, 『錦堂論曲』, 聯經出版社, 1977년, 95쪽.

夢)», 「月明和尚度柳翠(간칭 度柳翠)», 「龍濟山野猿聽經(간칭 猿聽經)」

2. 因果應報劇 3편: 「看錢奴買冤家債主(간칭 看錢奴)», 「崔府君斷冤家債主(간칭 崔府君)」<sup>2)</sup>, 「龐居士誤放來生債(간칭 來生債)」

3. 잡극 「西遊記」<sup>3)</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잡극 중 불교극에는 도탈극이 4편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度脫이란 본시 佛家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높은 덕을 지닌 高僧이나 神佛이 고통 중의 생명을 濟度하고 解脫시켜 不生不滅인 涅槃의 경지에 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과응보는 輪回와 함께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므로 불교극에서는 극의 주제나 전체적인 구조로써 위에서와 같이 자주 사용되었다. 다만 위의 불교극 중 잡극 「서유기」는 다소 독특한 것으로, 다른 불교극과는 달리 6本 24齣의<sup>4)</sup> 대형 잡극이며, 내용 또한 三藏法師 玄奘의 取經故事로서 明代 吳承恩의 소설 「서유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다른 불교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본시 불교라는 종교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니 분명 종교극이다. 그러나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종교극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곧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종교극이지만 중세 유럽에서 성행했던 종교극인 소위 기적극·신비극·전례극과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극 중 종교극인 노오(能)나 고대 인도의 종교극인 梵劇-일례로 「彌勒會見記」와도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sup>5)</sup> 그것은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다른 나라의 종교극에서 보인 祭儀儀式이나 엄숙함이나 경건함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世俗的이고 喜劇的인 娛樂性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왜 이러한 세속화 양상을 보여주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2) 논자에 따라 간칭을 「冤家債主」 「斷冤家債主」라고 하기도 하지만 「看錢奴」의 전체 劇名에도 「冤家債主」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崔府君」이라고 한다.

3) 다른 불교극과는 달리 7-8 글자로 된 劇名이 따로 없다.

4) 잡극 「서유기」에서는 원잡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折'이란 용어 대신에 '齣'을 사용하고 있다.

5)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 제66권 제1기, 2013년, 88쪽.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sup>6)</sup> 원대 불교 자체의 세속화와의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불교의 세속화는 삼교합일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삼교합일이란 三教歸一·三教調和·三教融合 등으로도 불리우는 것으로, 중국에서 성행한 유교와 불교 및 도교라는 세 종교를 조화·융합시키려는 것이다. 일례로 中國화된 불교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禪宗의 기틀을 마련한 唐代的 六祖 惠能은 그의 『六祖壇經』에서 “불법은 世間에 있으며 세간을 떠나서는 깨닫지 못하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네.”(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兔角)라고<sup>7)</sup> 하였다. 이렇듯 중국을 대표하는 불교 종파인 선종이 이미 당나라 시기에 벌써 세속화의 길을 걸었는데, 이는 삼교합일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삼교합일의 양상은 원잡극이 성행했던 시기에 이미 조류가 되었으며, 원잡극 중에는 삼교합일의 양상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삼교합일의 관점에서 원대의 불교극의 성격과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잡극 중 불교극의 성격을 삼교합일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살펴본 논문은 별로 없는 편이다. 毛小雨는 「元雜劇中佛教戲研究」라는 논문에서 불교극을 삼교합일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저평가된 불교극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했으며,<sup>8)</sup> 楊毅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에서 불교극에 나타난 삼교합일의 양상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sup>9)</sup> 본 논문은 이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원대 불교극 중 삼교합일의 양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고, 아울러 극 중에서 삼교합일은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6) 일례로 朱莎는 「論元雜劇中佛教世俗化現象及原因」에서 원잡극 자체의 속문학적 성격, 불교가 俗人の 바람을 만족시키는 정신적 기탁처가 된 점, 禪宗의 세속화 등을 지적했다. 『襄攀學院學報』 제33권 4기, 2012년.

7) 김창윤저, 『부처를 죽이고 부처가 되라』, 올린책상, 2006년, 228쪽.

8)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년.

9)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

## 2. 본론

### 1) 삼교합일의 내력

삼교합일의 주장이 대두된 것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불교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게 되고, 아울러 도교가 呪術과 民間信仰 등을 집대성하여 중국 고대의 종교로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後漢 말엽부터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중국에서 삼교합일을 제창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후한의 牟融(?-79)으로 여겨진다. 후한의 사상가 牟融은 그의 『理惑論』에서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가치관이 접촉하여 생겨난 유불도의 논쟁과 융합의 양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다만 그는 삼교합일 사상을 표방하면서도 불교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저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理惑論』에서 주장하였다.

서책이 반드시 孔子의 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이 반드시 扁鵲의 처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네. 이치에 맞으면 따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면 양약이지. 군자는 널리 여러 학파의 좋은 것을 취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한다네(書不必孔子之言, 藥不必扁鵲之方. 合議者從, 愈病者良. 君子博取衆善, 以輔其身)<sup>10)</sup>

위의 인용문에서 모용은 남들이 자신에게 유교의 五經을 배반하고 불도를 숭상한다는 이단자라고 비난하자, 자신의 삼교합일의 실용주의적 주장으로 대답하였다. 곧 모용은 환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양약이라면 반드시 편작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듯이, 이치에 맞으면 여러 학파의 좋은 점을 취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 반드시 공자의 책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理惑論』에서 불타의 威容이나 행동거지의 관점과 治民修身의 관점에서는 불교와 유교를 조화시키려 했고, 부처를 도덕의 원조라는 점에서는 불교와 도교를 조화시키며, 불교의 도를 老子的인 관점에서 보아 無爲自然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

10) 『理惑論』, 『大正藏』 52권, 1쪽.

다.<sup>11)</sup>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서 삼교합일의 주장은 더욱 왕성하게 나타났다. 東晉의 孫綽(320-377)은 그의 『喻道論』에서 “周公과 孔子가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주공과 공자이다.(周孔卽佛, 佛卽周孔)”<sup>12)</sup>라고 대담하게 말하였고, 南朝 齊나라의 大臣이자 道士인 顧歡(生卒 未詳)은 그의 『夷夏論』에서 “부처가 老子이고, 노자가 부처다(佛是老子, 老子是佛)”<sup>13)</sup>라고 말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근본은 같다고 하였다. 또 北周의 顏之推(531-602)는 그의 『顏氏家訓』에서 불교와 유교가 사상적으로 한 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교의 근본사상인 五常과 불교의 五戒를 조화시켰다.

仁이란 不殺生의 禁戒요, 義란 不偷盜의 禁戒요, 禮란 不邪淫의 禁戒요, 智란 不飲酒의 禁戒요, 信이란 不妄語의 禁戒이다.(仁者不殺之禁也, 義者不盜之禁也, 禮者不邪之禁也, 智者不酒之禁也, 信者不妄之禁也)<sup>14)</sup>

위의 인용문에서 안지추는 중국 유교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五常을 불교사상인 五戒에 배합해 조화를 꾀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일찍부터 행해지던 것으로서, 특히 불교측으로부터 제창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안지추가 살던 北周 시기에는 武帝의 廢佛이<sup>15)</sup> 단행되어 불교가 식자들로부터 외면당했으나, 그 와중에서도 불교를 연구하여 유교로 흡수한 것은 실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16)</sup>

수·당 시기에 이르러 유교와 불교 및 도교는 三教鼎立의 상태를 이루어 삼교합일은 더욱 진일보한 상태에 이르렀다.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단지 형식상으로 삼

11) 구보타 료은 지음, 최준식 옮김,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년, 22쪽.

12) 『喻道論』, 『大正藏』 52권, 16쪽.

13) 『夷夏論』, 『大正藏』 52권, 41쪽.

14) 『廣弘明集』 卷三, 『大正藏』 52권, 107쪽.

15) 불교 탄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원·불당·불상·경서를 파괴하고 승려와 니승(尼僧)을 환속시키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원(莊園)과 노비를 국가가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불교사에서는 네 번의 큰 폐불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삼무일종의 폐불(三武一宗의 廢佛)이라고 부른다. 삼무(三武)는 북위(北魏)의 태무제(太武帝: 재위 423~452), 북주(北周)의 무제(武帝: 재위 560~578), 당(唐)의 무종(武宗: 재위 840~846)을 가리키고, 일종(一宗)은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재위 954~959)을 가리킨다.

16) 구보타 료은 지음, 최준식 옮김,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년, 143쪽.

교합일을 제창하여 이론상 아직 융합을 이루지 못한 반면, 수·당 시기에는 유학 위주의 전제 하에서 삼교가 이론상 융합을 실현하였다.<sup>17)</sup> 隋代에는 서로 배척하는 일이 없이 융합조화론만이 주장되었다. 도교와 불교 사이에는 李士謙(生卒未詳)이 三教鼎立說을 주장하였고, 유교와 불교 사이에는 王通(584-617)이 삼교융합설을 주장하였다.<sup>18)</sup> 당나라 시기에 이르러 불교와 도교, 불교와 유교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논쟁 후에 宗密(780-841)은 「原人論」에서 중국 사상인 유교·도교를 불교의 입장에서 정의하여 삼교일치설(三教一致說)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五代까지는 삼교합일설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9)</sup>

宋·元 시기 사상영역에 있어서 삼교합일은 고도로 이루어졌고, 삼교합일의 결과는 封建 宗法制度 이론의 최고 성취를 대표하는 理學의 탄생이며, 또한 흥성 시기의 도교도 유불도를 한 몸으로 융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교파인 全眞教를 형성하였다.<sup>20)</sup> 유교는 송대에 이르러 더욱 불교를 연구하고 그 교리를 취하여 마침내 자연철학을 대성하여 이른바 유교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송대의 유학자들은 불교 중에서도 특히 禪과의 교섭이 밀접했는데, 禪은 不立文字를 표어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그 교리도 대단히 간단하였다. 따라서 그 수도방법도 指心見性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교도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송대 理學은 禪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1)</sup> 이렇듯 宋代의 삼교합일은 주류가 되었고 매우 흥성하였으니, 일례로 北宋 때 승상을 지낸 張商英(1043-1121)은 그의 「護法論」에서 “儒는 피부를 낮게 하고, 道는 혈맥을 낮게 하고, 佛은 골수를 낮게 한다”(儒療皮膚, 道療血脈, 佛療骨髓)라고 했으며,<sup>22)</sup> 南宋 때 제2대 황제 孝宗(1127-1194)은 그의 「原道辨」에서 “그것을 대강 말한다면 불교로써 마음을 닦고, 도교로써 양생하고, 유가로써 치세하면 되는데, 또 어찌하여 미혹되겠는가?”(大略謂之, 以佛修心, 以道養生, 以儒治世, 可也, 又何惑焉)라

17) 楊軍, 「宋元時期三教合一原因探析」, 江西社會科學, 2006년, 98쪽.

18) 구보타 료은 지음, 최준식 옮김,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년, 145-146쪽.

19) 林義正, 「儒佛會通方法研議」, 『佛學研究中心學報』第七期, 2002년, 188쪽.

20) 楊軍, 「宋元時期三教合一原因探析」, 江西社會科學, 2006년, 98쪽.

21) 구보타 료은 지음, 최준식 옮김,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년, 195쪽.

22) 「護法論」, 『大正藏』52권, 643쪽.

고<sup>23)</sup> 했다. 또 이러한 宋代 삼교합일의 사상은 元代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시대 조류로써 작용하였다. 일례로 원말 명초의 유학자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한 劉謚(유밀)(生卒 未詳)은 그의 「三教平心論」에서 유불도 삼교가 이치로 추리하자면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원을 가졌지만 셋으로 나뉘었다고 하면서<sup>24)</sup> 三教鼎分說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삼교합일의 사상은 원잡극이 성행했던 당시에 주류적 종교사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 2) 불교극 중의 유교적 성분

원잡극 중 불교극에는 당연히 불교사상이 핵심적 주도작용을 하지만 극 중에는 당시에 성행한 삼교합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교적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종교로서의 유교는 공자에 의해 창시되어 맹자, 한유, 주자, 등으로 이어진 현실주의적 사상 체계로서, 현실 생활에서의 五常 곧 仁義禮智信 등의 도덕적 덕목을 중시하며, 그 핵심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기를 완성하여 군자가 되어 남에게 덕행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잡극 중 불교극에는 당시의 현실생활을 반영하고 현실생활 중 인간 중심의 윤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요소가 고통 속의 현실을 초탈하여 청정한 열반의 세계를 지향하는 불교적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리하여 원잡극 중 불교극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요소가 혹은 유교 사상의 윤리규범을 직접 선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원나라 당시 열악한 지위에 처한 知識分子 등 당시의 현실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삼교합일의 영향으로 인한 이러한 유교적 요소가 원잡극 중 불교극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23) 「原道辨」, 『大正藏』 49권, 429쪽.

24) 임형석, 「劉謚의 「三教平心論」에 대하여- 유교의 排佛論에 대한 불교도의 반응」, 『한국철학논집』 제20집, 74쪽.

## (1) 유교사상의 윤리규범

원잡극 중 불교극은 분명 불교극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극 중에 유교사상의 윤리규범을 직접적으로 선전하기도 한다. 일례로 「간전노」와 「서유기」·「동파몽」에서 극의 작자는 유교사상의 윤리규범을 극 중 등장인물을 통하여 선전한다.

먼저 鄭廷玉(生卒 未詳)의 「간전노」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배경으로 당시 사회에 나타났던 守錢奴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諷刺喜劇이다. 극의 제1折에서 神廟 중의 靈派侯는, “속담에서 말하길, 不孝하면 千 묶음의 종이돈을 (신령님께) 태우더라도 쓸모 없고, 양심에 부끄러우면 향로에 만 개의 향을 피어도 헛되다(便好道, 不孝謾燒千束紙, 虧心空爇萬爐香)”라고<sup>25)</sup> 하였다. 극 중에서 靈派侯가 한 위의 말은 『明心寶鑑』 省心篇에도 나오는 유명한 것으로, 유교 윤리의 핵심 규범인 孝道와 良心을 강조한 것이다. 또 「간전노」의 극 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周榮祖는 楔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仙呂賞花時】 또 일찍이 불교 경전과 유교의 宗師 책을 자세히 공부했나니, 모두 積善修心이 제일이라고 아니한 것이 없었다오. 우리 집안이 富貴한 것도 조상님들이 덕을 쌓았기 때문이요, 그분들이 왜 仁德을 베풀었나면, 孝子和 賢妻를 얻기 위해서지요.(也曾將釋典儒宗細講習, 無非是積善修仁爲第一. 則俺這家豪富是祖先積, 他爲甚施仁布德, 也則要博一个孝子和賢妻)<sup>26)</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극 중의 주인공 주영조는 제일 처음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積善修心’과 ‘仁德’ 및 ‘孝子賢妻’라는 유교적 윤리규범을 칭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간전노」의 작자가 극 중에서 진정으로 표현하고 선양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불교사상이 아니라 도리어 유교의 윤리규범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곧 여기에서 불교리는 종교사상은 작품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여겨지기도 한 것이다.<sup>27)</sup> 물론 이렇게 작품의 목적과 수단이 논자에 따라 다르

25)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第4冊 下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3986쪽.

26)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第4冊 下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3982쪽.

27) 張麗娟, 「元雜劇看錢奴佛教思想之新解」, 『文藝評論』, 10期, 2010년.

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불교극인 「간전노」에 삼교합일의 복합적 사상이 핵심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원잡극 「서유기」는 唐代 玄奘(602-664)의 西天取經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전부터 전해오던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 등을 가미한 불교극이다. 그러나 극 중에는 인과응보나 불경의 이야기 등을 비롯한 불교사상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교적 도덕규범 또한 종종 나타난다. 극 중의 주인공인 唐僧으로 등장한 玄奘은 西天取經을 위한 여러 대신들의 환송식에서 “신하로서 忠誠을 다하고, 자식으로서 孝道를 다하리. 충성과 효도 두 가지를 겸비하게 되면, 나머지는 보답할 것이 없네.(爲臣盡忠, 爲子盡孝, 忠孝兩全, 餘無所報)”라고<sup>28)</sup> 충성과 효도를 다할 자신의 각오를 밝힌다. 또 제10齣의 【牧羊關】에서는 山神의 노래를 통하여 “이번 西天取經의 出行이 半은 백성을 위해서 이고, 半은 국가에 보답하고자 하기 때문이네.(此一行半爲於民, 半爲報國)”라고 하면서 유교에서 중시하던 爲民報國의 사상을 드러냈다.

吳昌齡(生卒 未詳)의 「동과몽」은 高德을 지닌 佛印禪師(1032-1098)가 세속의 고통 속에 방황하는 친구인 小童과(1036-1101)를 도탈시켜 불교에 귀의하게 만드는 도탈극이다. 그런데 극의 주인공인 불인선사는 제4折에 등장하면서 곧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불인선사: 나무아미타불. 이번에 피우는 향불로는 우리 임금님께서서 萬壽를 누리시고 신하들이 千壽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피우는 향불로는 백성들이 맡은 일을 즐겨하고 五穀이 풍년들길 축원합니다.(南無阿彌陀佛. 此一炷香願吾王萬壽, 臣宰千秋, 此一炷香願黎民樂業, 五穀豐登)<sup>29)</sup>

위의 인용문에 보인 바와 같이 극 중 승려 신분인 불인선사는 극 중의 마지막 折인 제4절에서 도리어 국왕의 萬壽를 기원하고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즐겨하기를 축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雙調新水令】에서 “國泰民安하고 단비가

28)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中華書局, 1987년, 648쪽.

29)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第3冊 下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3141쪽.

제 때에 내리길 기원하노라(國泰民康願甘雨及時降)"라고 노래하였다. 이렇듯 불교극인 「동파몽」에 유교적 색채가 분명한 윤리사상과 규범 등이 나타난 것은 원나라 시기의 불교에 삼교합일의 사상이 확실한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2) 열악한 지위의 지식분자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원나라 당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한 지식분자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간전노」와 「동파몽」 및 「원청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지식분자의 형상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중 「간전노」에서 儒學을 학습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한 지식분자인 秀才 周榮祖는 落魄한 지식분자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극 중에서 주영조는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한 지식분자의 처참한 모습을 대표하고 있으니, 그는 극 중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부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팔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눈자에 따라서는 중국의 고전문학 작품 중 어느 시대의 작품도 지식분자의 비참함을 원잡극 「간전노」 중 주영조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게 묘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sup>30)</sup>

「동파몽」에서 소동파는 고통과 시련에 처한 지식분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극 중에서 피도탈자인 그는 현실에 참여하려는 강한 유교적 사유를 지니고 도탈자인 불인선사를 설득하고 유혹하였으나, 끝내는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교에 귀의한다. 극 중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사유와 불교적 사유의 충돌 중에 지식분자로서 피도탈자인 소동파의 고통과 시련이 계속 묘사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관직에 나아간 지식분자의 고통과 시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명씨의 「원청경」은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도탈극으로, 극 중에서 원숭이는 落魄한 지식분자인 樵夫(나무꾼)와 과거에 급제한 문인으로 두 차례 신통한 변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高僧인 修公禪師의 도움을 받아 得道하고 解脫하여 극락세계에 이른다. 그런데 극 중에서 원숭이가 변신한 樵夫와 과거에 급

30)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년, 20쪽.

제했지만 여러 고통과 시련을 겪은 문인은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 나타난 지식분자의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인데, 「원청경」의 원송이는 결국 이 두 가지 지식분자의 유형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러면 극 중에 나타난 이 지식분자의 인물형상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正末이 나무꾼으로 분장하고 등장하여 말하길): 저는 이 산 아래의 나무꾼(樵夫)입니다. 姓은 余씨이고 이름은 舜夫이예요. 저는 비록 나무꾼이지만 어려서 儒家의 學業을 배웠지요. 家業이 쇠락하고 功名을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하겠어요. 단지 늘 이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며 살지요. 저같은 선비가 공연히 국가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할 재주를 지니고서는 여전히 이렇게 빈궁하게 지내니 정말 서글프네요.(노래한다) ……

【油葫蘆】 ……충명한 사람은 오랫동안 곤궁하여 한가롭게 지내고, 어리석은 이가 벼슬을 받구나. 십년 동안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힘들게 공부했건만, 가난한 내가 언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겠구나. (正末扮樵夫上, 云)小人是這山下一个打柴的樵夫, 姓余名舜夫. 小人雖是个樵夫, 幼習儒業, 争奈家業凋零, 功名未遂, 常只是在此山中採樵为生. 想俺這讀書的, 空有經綸濟世之才藝, 產的在此窮暴之中, 好是傷感人也呵!(唱) ……

【油葫蘆】 …… 聰明的久困在閑, 愚蠢的爵祿封. 自俺那寒窗風雪十年凍, 不知俺受貧的却也甚日榮.)<sup>31)</sup>

극 중에서 儒家의 학업을 배웠으나 功名을 이루지 못하여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며 사는 樵夫로 변신한 원송이는 원나라 당시 가난하고 힘든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지식분자의 보편적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극의 第三折에서 원송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공명을 이룬 袁遜이라는 文人の 신분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극 중 그의 운명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며, 결국 그는 부귀공명을 버리고 佛法에 귀의하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 「원청경」 중에서 원송이가 초부와 문인으로 변한 것은 당시 지식분자들의 두 가지 형상을 하나의 작품에서 함께 보여주는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다.

31)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中華書局, 1987년, 949쪽.

## (3) 냉혹한 현실 반영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종교극임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서는 원나라 당시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적이고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불교가 내세지향적인 종교임을 감안하면 분명 현실지향적인 당시의 유교사상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불교극 중 이러한 냉혹한 현실반영이라는 현실지향적 경향은 현실지향적인 유교사상의 직접적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일 수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유교사상은 현실지향적 경향의 充分條件이지만, 불교극 중의 현실지향적 경향은 유교사상의 必要條件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불교극 중의 현실지향적 경향은 원나라 시기 성행했던 삼교합일의 추세와 일정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서 원나라 당시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류취」와 「최부군」을 살펴보자.

李壽卿의<sup>32)</sup> 「도류취」는 도탈자인 月明和尚이 기녀 신분의 피도탈자 柳翠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진입하도록 만드는 도탈극이다. 「도류취」는 도탈극이기 때문에 피도탈자인 류취는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고난 및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녀는 극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인 杭州에서 비참한 기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원나라 시기의 기녀 문제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원나라 시기에는 도시 상품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관료와 지주 및 상인들이 향락을 추구하여 기녀가 매우 성행하였다. 원나라 시기 중국을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지은 『東方見聞錄』에 의하면, 당시 원의 수도였던 大都의 성곽 밖에는 기녀가 25,000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sup>33)</sup> 그런데 이들 중 樂籍에 올라 官妓가 되고 특히 上廳行首가<sup>34)</sup> 되면 더욱 더 관부의 압박을 받았고, 지방관들은 '喚官身'<sup>35)</sup>이라는 명의로 마음대로 불러다 연회와 술자리에서 향락을 추구하였다.<sup>36)</sup> 극 중에서는 이러한 당시의 기녀형상이 생동적으로 묘사되었다.

32) 『元曲選』에서는 無名氏의 작품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李壽卿의 작품이라고 여긴다.

33) 김명석, 『역사 속 중국의 성문화』, 한국학술정보, 2010년, 167쪽.

34) 上廳은 官府를 가리키고 行首는 관기 중 미모와 재능이 뛰어난 기녀를 가리킴.

35) 官府에서 藝人을 부르면 관부에 가서 의무적으로 가서 시중들고 가무를 공연하는 것.

36)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년, 24쪽.

무명씨의 「崔府君」은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서 인과응보적 종교적 색채가 제일 강렬하고 단순하게 묘사된 작품으로, 극 중 주인공인 張善友의 두 아들이 前生에 지은 業의 果報를 今生에서 갚고 있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극 중에서 張善友의 큰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가 병에 걸리게 된 내력을 묘사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큰아들: 어머니, 제가 이 병을 왜 걸린지 모르시지요. 제가 그날 전당포 문 앞에서 때마침 양고기구이집을 지나다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자 양고기를 보고는 먹고 싶어서 한 근에 얼마냐고 물었지요. 주인이 한 근에 두貫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어떻게 두貫을 주고 사서 먹겠어요. 저는 그 양고기를 두 손으로 두 번 집고는, 양이 말랐다는 핑계로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기름 묻힌 두 손을 소매에 넣고는 집에 와서 밥을 퍼서는 한 손에 묻은 기름을 몇 입 훑어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한 끼로 다섯 그릇을 배불리 먹었더니 졸렸어요. 또 남은 한 손의 기름은 점심 때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저도 몰래 잠이 들어 한 손을 소매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와서는 내 손의 기름을 깨끗이 훑어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乞僧云: 娘也, 我这病你不知道, 我當日在解典庫門前, 適值那賣燒羊肉的走过. 我見了這香噴噴的羊肉, 待想一塊兒吃, 我問他多少錢一斤, 他道兩貫鈔一斤. 我可怎生舍的那兩貫鈔買吃? 我去那羊肉上將兩只手捏了兩把, 我推嫌羊瘦, 不曾買去了. 我却袖那兩手肥油, 到家里盛將飯來, 我就那一只手上油舔幾口, 吃了一碗飯. 我一頓吃了五碗飯, 吃得飽飽兒了, 我便瞌睡去. 留着一只手上油, 待吃晌午飯. 不想我睡着了, 漏着這只手, 却走將一個狗來, 把我這只手上油都吮干净了. 則那口氣, 就氣成我這病)<sup>37)</sup>

위의 인용문에서 「崔府君」의 작자는 과장과 嘲笑의 수법을 동원하여 풍자함으로써 인색한 수전노의 추악한 형상을 생생하고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에 의하면 주인공인 장선우의 큰아들의 병은 수전노적인 화병이다. 그는 양고기구이집의 양고기를 먹고 싶지만 돈이 아까워 차마 사먹지 못하고, 사는 척하면서 두 손에 양고기 기름을 흠뻑 묻힌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한 손에 묻힌 기름으로 다섯 그릇의 밥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때마침 개가 와서는 남은 한 손의 기름을

37)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第3冊 下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2868쪽.

모두 훑어 먹어버린 것에 화가 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이러한 수전노의 인물형상 묘사는 「간전노」의 第三折에도 거의 똑같이 나타나 있어<sup>38)</sup> 당시 수전노의 인물형상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묘사라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삼교합일의 관점을 통하여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 나타난 유교적 성분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극 중의 유교적 성분은 불교적 성분과 결합되어 나타났는데, 혹은 忠孝 등 유교의 도덕규범을 직접 선전하기도 하였고, 혹은 원대 당시 열악한 지위에 처한 지식분자의 현실과 갈등을 강렬하게 반영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어두운 사회문제 등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작자는 불교 교리를 선전해야 하는 불교극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교적 도덕규범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현실사회 중 사회적 지위가 열악했던 유교적 지식분자의 비참한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삼교합일 중의 유교적 성분은 불교극을 무미건조한 종교선전물에서 벗어나 더욱 생동적이고 문학적 의미를 지니게 만드는 기능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 3) 불교극 중의 도교적 성분

도교는 고대의 民間信仰을 기초로 神仙說을 중심에 두고 老莊思想·역리(易理)·음양·오행·참위(讖緯)·의술·점성, 그리고 불교와 유교사상까지 받아들여, 심신의 수련을 통한 不老長生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現世의 吉福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삼교합일 사상의 영향으로 이러한 도교적 성분이 보이는데, 유교적 성분에 비해 전반적이지 못하지만 여러 작품에 도교적 성분이 보인다. 이러한 도교적 성분은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서 도교적 생활규범을 칭송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도교의 이상인 長生不死의 사상과 도교적 성분이 불교적 성분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불교극 중에 나타난 도교적 성분을 살펴보자.

38)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第4冊 下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4021쪽.

## (1) 도교적 생활규범

원잡극 중 불교극에는 도교적 생활규범이 극 중에서 직접 주창자의 노래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불교극과 비교하면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도교적 성분이 비교적 강하게 묘사된다. 그러면 이러한 도교적 생활규범이 직접적이면 서도 비교적 자세히 나타난 「서유기」를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唐僧 일행이 등장하여여 말하길): 女人國을 떠나 한 달 동안 나섰는데, 앞이 어디인지 모르니 마을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겠다. ……(퇴장) (採藥仙人이 漁鼓와 簡子를<sup>39)</sup> 지니고 등장): 산이 높고 물이 깊구나. ……만약 酒色財氣를 벗어날 수 있다면, 속세의 신선이 될 수 있으리라. (노래한다)

【南呂玉交枝】 술을 탐하길 싫증이 없어서, 매일 맛있는 술 가득하다네. …… 술이여! 천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명성을 날린다네.

【么】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일찍이 용모가 멋진 美女이지오. …… 女色이여! 천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명성을 날린다네.

【么】 부유한 것은 지나치게 검소한 것이고, 호화로운 생활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은 것이네. …… 재물이여! 천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명성을 날린다네.

【么】 영웅처럼 화내는 기세는 맹수같아서 그칠줄 모른다네. …… 화념이여! 천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명성을 날린다네. (唐僧一行人上, 云) 自離了女人國, 行經一个月期. 不知前至那裏, 得個地方人, 問他問路兒也好. (下) (採藥仙人持漁鼓、簡子上, 云) 山兮山兮高, 水兮水兮深. …… 若離得酒色財氣, 便堪爲塵世神仙.(唱) 【南呂】 【玉交枝】 貪杯無厭, 每日價汎流霞激灑. …… 酒呵, 播聲名天下嫌. 【么】 待誰來挂念? 早則是桃腮杏臉. …… 色呵, 播聲名天下嫌. 【么】 富豪的偏儉, 奢華的無過是聚斂. …… 財呵, 播聲名天下嫌. 【么】 英雄氣焰, 貔虎般不能收斂. …… 氣呵, 播聲名天下嫌. 40)

위의 인용문은 「서유기」 第十八齣인 〈迷路問仙〉의 앞 부분으로서, 극 중의 주인공 唐僧 일행이 등장하지만 위에서와 같이 곧 퇴장하고 도교사상을 선전하는 採藥仙人이 등장하여 극 중에서 主唱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불교극 중에

39) 漁鼓와 簡子は 희곡에서 道情을 노래할 때 반주하는 타악기.

40)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中華書局, 1987년, 979-980쪽.

서는 매우 독특한 경우라고 하겠다. 위의 인용문 중 극 중의 주창자인 採藥仙人은 속세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酒色財氣(술과 女色 및 재물 욕심, 그리고 화를 내는 것)라는 네 가지 사항을 경계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주색재기는 도교에서 수련의 과정 중 인간이 경계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듯 玄奘의 取經故事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불교극인 「서유기」에서 도교적인 성분이 사용되어 불교적인 성분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도교적 이상 추구하고 도교 용어의 사용

원잡극 중 불교극에서는 도교에서 수련을 통하여 최종적 목표로 추구하는 長生不死나 昇天 등 도교적 이상이 일반적으로 극의 결말 부분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것은 극 중 주인공이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수행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종종 장생불사나 白日昇天 등의 도교적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극 중 주인공의 수행 과정은 비록 불교적인 성분이 대부분이지만, 결말에는 도리어 도교적 성분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鄭廷玉의 「忍字記」는 도탈자인 布袋和尚이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하여 피도탈자인 주인공 劉均佐를 도탈시키는 내용의 불교 도탈극이다. 그런데 극 중의 주인공인 유균좌는 온갖 수행을 통하여 결국 도탈되었는데, 극의 결말은 도교적 성분이 불교적 성분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면 「인자기」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堯民歌】…… 사부님이 만일 昇天해 버리시면 어떡하지요? ……

(포대화상): 유균좌는 들어라. 그대는 凡人이 아니라 天上의 제13尊 羅漢인 賓頭盧尊者<sup>41)</sup>이니라. 네 부인도 凡人이 아니라 驢山老母가 되었느니라. 또 네 아들 딸은 金童과 玉女가 되었느니라. (【堯民歌】…… 師傅也不爭你昇天去後我如何. …… (布袋云): 劉均佐, 你聽者. 你非凡人, 乃是上界第十三尊羅漢賓頭盧尊者. 你渾家也非凡人, 他是驢山老母一化. 你一雙男

41) 빈두로(賓頭盧)는 산스크리트어로 Pindolabharadvaja이고 16羅漢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역하여 부동이근(不動利根)이라고 한다.

女. 一個是金童, 一個是玉女.)<sup>42)</sup>

위의 인용문은 「인자기」의 결말 부분인 第4折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극 중에서 힘든 수행을 통과한 주인공 유균좌가 어떠한 모습으로 도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유균좌는 먼저 극 중의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수행 목표가 도교적 修鍊의 이상인 '昇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도탈자인 포대화상은 유균좌의 수행결과를 말하면서 유균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이미 '凡人'이 아니라 속세를 초월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 위의 「인자기」에는 여러 가지 도교 용어들이 사용된다. 일례로 金童과 玉女는 도교에서 神仙을 옆에서 모시는 천진무구한 남녀 아이들인데, 위의 「인자기」에서는 도탈한 주인공의 아들과 딸이 각각 金童과 玉女로 변하며, 또한 驪山老母는 도교의 고대 전설 중 여성 神仙의 이름인데, 「인자기」에서는 도탈한 주인공의 부인이 최후에는 驪山老母로 변한다. 이렇듯 「인자기」의 결말에서는 극 중의 주인공 가족들이 불교적 성분과 함께 도교적 성분의 형상으로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劉君錫(生卒 未詳)<sup>43)</sup> 「내생채」는 당나라 시기 역사적 실존인물인 龐蘊居士(生卒 未詳)의 行蹟을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중심으로 묘사한 불교극이다. 극 중에서 주인공인 방온거사는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뜻밖에 그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고리대로 인한 어려움으로 빚을 갚지 못하여 그 괴로움으로 병에 걸리고 만다. 곧 방거사는 돈을 빌려주는 자신의 好意가 도리어 고리대로 인하여 남에게 來生에서의 채무 곧 '來生債'를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극 중에서 방거사는 자신의 많은 재산이 재앙의 근원임을 깨달아 집안의 재산과 보물들을 바다에 버리고, 채무자들과의 계약서를 불태워 버리며, 스스로 청빈한 생활을 한 결과, 최후에는 得道하여 白日 昇天하게 된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2)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第3冊 상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2732쪽.

43) 『元曲選』에서는 無名氏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殿前歡】……(增福神): 방온거사, 당신은 오늘 功德을 이루고 修行을 원만히 갖추어서, 수행의 果報인 깨달음을 證得하였으며 속세를 떠난 神仙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방온거사가 노래한다): 六道輪回에 들지 않고 또 제가 平地升天하길 바랍니다. (【殿前歡】……(增福神云): 居士今日功成行滿, 證果朝元也. (正末唱) 不打入六道輪回轉, 又待着俺平地升天.)<sup>44)</sup>

위의 인용문은 「내생채」의 제4절 마지막 부분으로서, 극 중의 주인공인 방온거사가 청빈한 修行을 완성한 후 그가 얻게 되는 果報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극 중에서는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서 인간의 生死와 貴賤 및 高下를 관장하는 增福神이 등장하여 극 중의 주인공 방온거사가 ‘功成行滿’하여, 그 결과‘證果朝元’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극 중의 주인공 방온거사가 극 중에서 ‘功成行滿’한 果報인 ‘證果朝元’이라는 용어는 불교 회곡 용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다소 독특한 造語法으로 이루어졌다. 곧 ‘證果朝元’은 ‘證果’‘朝元’이라는 두 개의 용어가 결합되어진 것인데, 각기 불교와 도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證果’는 불교의 수행자가 부단한 精進修行을 한 후에 얻게 되는 결과인 果報를 證得(진리를 깨달음)함을 말하고, ‘朝元’은 도교의 수련자가 부단한 수련을 통과하여 神仙의 경지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證果朝元’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비슷한 불교와 도교의 용어를 결합한 것으로, 원잡극 불교극에는 불교적 성분과 함께 도교적 성분도 용어상에서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극 중의 주인공 방온거사는 增福神에게 자신의 수행 목표를 노래하는데, 그는 자신이 더 이상 六道輪回에 들지 않고 平地昇天하기를 기원한다. 여기에서 六道輪回은 불교에서 중생이 善惡의 업인(業因)에 따라 地獄과 餓鬼, 畜生, 修羅, 人間, 天上의 여섯 세계를 윤회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믿는 것으로, 방온거사는 수행 후 이러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涅槃의 세계에 진입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온거사는 또 자신이 수행 후 平地昇天하기를 바랐는데, 平地昇天은 본시 도교에서 수련자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이상인

44)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第1冊 하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 926쪽.

神仙의 경지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극 중에서 방온거사가 수행 후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로서 불교적인 성분과 도교적인 성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결론

원잡극 중에는 인과응보나 윤회관념 등 불교적 사상과 교리를 선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불교극이 8편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세속적 인물 형상을 神聖한 인물형상으로 濟度하고 解脫시키는 내용의 도탈극이 4편, 인과응보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의 인과응보극이 3편, 이외는 달리 다소 독특한 내용과 구성으로 당나라 玄奘의 西天取經을 묘사하여, 후세에 명대 吳承恩의 소설 『서유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잡극 「서유기」가 있다.

원잡극 중의 불교극은 불교라는 종교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 종교극이다. 그러나 원잡극 중의 종교극은 서양 중세의 종교극이나 일본의 노오(能)나 인도 고전의 종교극인 梵劇과는 달리, 종교적 경건함이나 엄숙함이 거의 없으며, 도리어 세속성과 오락성을 핵심으로 하는 喜劇적인 분위기로 충만되어 있다. 원잡극 중 불교극의 이러한 성격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국 불교 자체의 삼교합일적 사상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삼교합일의 사상은 중국의 유교와 도교 및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조화·융합시키려는 것으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도교가 틀을 잡기 시작한 後漢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牟融의 『理惑論』은 대표적인 것이다. 이후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삼교합일의 사상이 점점 흥성해지기 시작했고, 불교가 흥성한 수·당 시기에 이르러서는 三教鼎立說이 제창되었다. 송·원 시기에 이르러 삼교합일은 고도로 이루어졌고, 송대의 理學과 원대 성행한 奎眞教는 삼교합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송원 시기 삼교합일의 사상은 주류가 되었다. 그리하여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이러한 삼교합일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극 중에는 자연스럽게 삼교합일

의 사상이 반영되었다.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삼교합일 사상의 영향으로 유교적 성분이 극 중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불교적 성분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극 중에서는 불교극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윤리도덕과 규범을 직접 선전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몇몇 작품에서는 유교에서 중시하는 윤리규범인 충효와 積善修心 및 孝子賢妻를 칭송하기도 하였다.

현실생활과 현실의 윤리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또한 원나라 당시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극 중에서 불교극의 작자들은 당시 사회에 존재한 妓女와 인색한 수전노의 추악한 형상을 과장과 嘲笑의 수법을 동원하여 諷刺하였으며, 원나라 당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지식분자의 형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삼교합일 중 유교적 성분으로 인하여 원잡극 중 불교극은 불교선전물에서 벗어나 당시의 어두운 사회를 반영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삼교합일 중의 유교적 성분은 불교극이라는 종교극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했으며, 만일 인과응보나 윤회사상이라는 종교적 외투를 벗어낸다면 불교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극적 성분을 상당히 지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원잡극 중 불교극에는 삼교합일의 영향으로 도교적 성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극 중에서는 도탈과 수행의 목적을 長生不死나 昇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실 장생불사와 승천은 도교 수련의 목적이다. 또 극 중에서는 불교극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적 용어들이 자주 보인다. 도교에서 신선에게 시중을 두는 천진무구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金童玉女가 쓰였고, 도교에서 고대 전설 중 신선의 이름인 驪山老母가 나타났으며, 원대 全眞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酒色財氣와 人我是非가 사용되었다.

〈參考文獻〉

-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 제66권 제1기, 2013년.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년.
-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
- 楊軍, 「宋元時期三教合一'原因探析」, 江西社會科學, 2006년.
- 林義正, 「儒佛會通方法研議」, 『佛學研究中心學報』 第七期, 2002년.
- 張麗娟, 「元雜劇看錢奴'佛教思想之新解」, 『文藝評論』, 10期, 2010년.
- 朱莎, 「論元雜劇中佛教世俗化現象及原因」, 『襄攀學院學報』 제33권 4기, 2012년.
- 嚴蘭紳 主編, 『元曲論集』, 河北出版社, 1993년.
- 『理惑論』, 『大正藏』 52권.
- 『廣弘明集』 卷三, 『大正藏』 52권.
-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第4冊 下卷,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中華書局, 1987년.
- 임형석, 「劉謐의 '三教平心論'에 대하여- 유교의 排佛論에 대한 불교도의 반응」, 『한국철학논집』 제20집.
- 김창윤, 『부처를 죽이고 부처가 되라』, 올린책상, 2006년.
- 구보타 료은 지음, 최준식 옮김,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년.
- 김명석, 『역사 속 중국의 성문화』, 한국학술정보, 2010년.

〈Abstract〉

The Study on Buddhist Drama of Yuan Zaju  
- By the Point with the Unity of Three Religion

Kim, Kwang-Young

At present Buddhist drama of Yuan Zaju of Yuan dynasty remained are eight works. Among eight works, four works are about reaching nirvana, three works are about punitive justice, one work is about bringing buddhistic sacred book.

Though Buddhist drama of Yuan Zaju is buddhist drama, their contents are mixed with three religion.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We can see Buddhistic element, Confucian element and Taoistic element. At the Yuan dynasty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are the vogue. At that time the writer of Buddhist drama of Yuan Zaju used three religions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Buddhistic element performed major role.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mostly hero is about Buddhism.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most hero finally be converted to Buddhism. In this point we can say these works are Buddhist drama.

But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Confucian element and Taoistic element are mixed. In these works we can see Confucian element and Taoistic element. If we from the Confucian element say,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we can see reality of at that time. For example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we can see loan sharking of at that time. And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we can find Confucian concept. For example in these works we can find the thought of ioyalty and filial piety.

If we from the Taoistic element say, In the Buddhist drama of Yuan Zaju we can see eternal life of hero.

Key Words: Buddhist drama, punitive justice, Unity of Three Religion, Confucian element, Taoistic element

이 논문은 2017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7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